

향기를 찾아서

대상 및 인원

성인, 가족
(15명 이내)

교육시간

30분

교육장소

사계절전시온실
(지중해)

교육자료

기후대별 지도
(사진자료), 시향지

교육목표

- 기후와 환경에 따라 식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
- 식물들이 생존을 위해 진화시켜온 향기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내용

- 지중해온실의 유칼립투스, 세이지, 로즈마리, 라벤더, 지중해쿠프레수스(지중해사이프러스)의 향기를 맡으며 식물의 환경적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단계	활동내용	소요시간 (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주의사항 안내 ○ 국립세종수목원 소개 ○ 프로그램 소개 	5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해온실 기후 이해하기 ○ 지중해온실 식물들의 환경적응 전략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알라가 즐겨 먹는 유칼립투스(<i>Eucalyptus grandis</i> W.Hill) - 오템세이지에 담긴 속담(<i>Salvia greggii</i> A.Gray) - 기억력에 좋은 로즈마리(<i>Rosmarinus officinalis</i> L.) - 보랏빛의 대표식물 라벤더(<i>Lavandula stoechas</i> L.) - 화가가 사랑한 나무 지중해쿠프레수스(<i>Cupressus sempervirens</i> L.) ○ 그림 속 식물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나무이야기 	2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향이 좋았는지 이야기 나누어보기 ○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기 	5분

향기를 찾아서

대상 및 인원

성인, 가족
(15명 이내)

교육시간

30분

교육장소

사계절전시온실
(지중해)

교육자료

기후대별 지도
(사진자료), 시향지



교육목표

- 기후와 환경에 따라 식물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름을 알아본다.
- 다양한 향기식물을 맡아보며 바쁜 일상 속 몸과 마음의 힐링시간을 갖는다.



유의사항

- 본 해설 프로그램은 특정 식물의 정유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단계	활동내용	◆교육자료, ☆주의사항	소요 시간 (분)
도입	<p>○ 해설사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 국립세종수목원의 온실 여행을 함께할 수목원해설사 000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할 '향기를 찾아서' 라는 해설프로그램은 3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목원에서 관리하는 식물들을 꺾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국립세종수목원 소개 국립세종수목원은 2020년 7월에 설립하였으며 면적은 65ha(20만평)에 약 25개의 주제정원이 있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인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대 중부 권역의 수목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수목원·정원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2023년 기준)</p> <p>○ 지중해성 기후 오늘 저와 함께 온실로 여행을 떠나실텐데요. 함께 여행할 대표적인 지역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 또는 파랑과 하얀색하면 떠오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기후대는 어디인가요?</p>	☆안전교육 필수	5분

지중해라는 이름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개의 큰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유럽 남부지중해 연안을 비롯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지역, 남아메리카 칠레중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남서부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는 최한월 평균 -3℃에서 18℃ 사이의 지역으로, 비가 오고 따뜻한 겨울과 건조한 여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식물의 향기. 허브

여름철 고온 건조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 이 지역 식물들은 잎이나 껍질이 두꺼우며, 지하 깊은 곳의 수분을 찾기 위해 뿌리가 깊습니다. 또한 스스로 유분을 저장하여 수분의 증발에 대비하기도 하고 향기 나는 잎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식물들은 왜 향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향기를 내게 된 것은 동물들에게 먹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 전략'입니다. 허브향은 사람들에게는 향균식물로 인기 있지만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은 허브향을 매우 독한 냄새로 인식해 가까이가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향이 있고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들을 '허브(Herb)'라고 부르고 있으며 약용식물, 식용식물, 향신료 등으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친숙한 식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개

지중해 온실에는 220여종이 넘는 식물들이 전시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종의 향기식물을 찾아 향기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장하면서 먼저 만나실 수 있는 향기는 오텀세이지입니다.

입구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 번씩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잎을 살짝 비빈 다음 손에 남은 향을 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입구가 복잡하니 오텀세이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쪽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 지중해 문화와 허브

지중해의 기후는 비가 오지 않는 매우 더운 여름과 따뜻하지만 비가 몰아서 내리는 겨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중해 기후의 건축물들은 여름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흰색으로 칠해진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을 가지고 있고,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도 이렇게 하얗게 칠해진 담장을 볼 수가 있다. 그리스의 하얀 담장과 스페인의 궁전수로를 품고 있는 지중해온실은 기후대의 식물만 식재한 것이 아닌 지중해의 생활과 문화까지 담고 있는 정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중해 정원의 식물은 강렬한 태양에도 잘 견디고 가뭄에도 강한 두꺼운 잎을 가진 나무 종류와 통풍과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는 허브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유칼립투스

이제 만나볼 식물은 직접 보기 전에 향을 먼저 맡아보실까요. 꽃향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풀 향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맡으신 향기는 바로 유칼립투스 향기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종류가 다양해서 잎 모양이 둥근 것부터 긴 것 나무높이도 제각각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던 길옆에도 있었는데요 식물의 이름표를 보시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실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식물이 '유칼립투스 그란디스'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코알라가 즐겨 먹는 식물로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잎 속에 정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로 항균과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어 오랫동안 약용되어 왔던 식물입니다. 유칼립투스의 향을 맡으면 기분도 상쾌해진다고 하니 한번 더 맡아보시면 어떨까요?

※ 식물정보[유칼립투스 그란디스]
 유칼립투스속은 700개 이상의 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록교목 또는 관목이다.
 유칼립투스의 세포조직 안에는 기름주머니가 있는데 특 쓰는 유칼립투스의 향은 살충과 살균에 효과가 있다.
grandis 라는 종소명은 이 나무의 높이와 관련이 있으며 매우 곧게 자라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다.
 꽃받침 안에 수백 개의 수술이 매달리는 독특한 흰색 꽃을 피운다.
 처음 꽃봉오리가 생겼을 때 빨간색의 덮개로 아주 단단하게 봉해져 있는데 이 덮개가 익어 열린 후에야 꽃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광택이 나는 창모양의 넓은 녹색 잎은 길이 15cm, 너비 3cm크기로 어긋나거나 마주난다.
 종자는 개화 후 6~ 7개월 후에 성숙되며 종피는 성숙한 후 적어도 1년 동안 닫혀있기도 한다.
 씨앗은 딱딱한 열매 속에 담겨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산불이 나서 뜨겁게 되면 껍질이 열려 발아한다.

유칼립투스 그란디스 *Eucalyptus grandis* W.Hill

○ 오텀세이지와 속담

오텀세이지는 높은 지대에서 자라던 야생화로 '마운틴세이지' 라고도 불립니다. 살균과 항균에 강한 성분이 있는 식물로 '정원에 세이지를 심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 시대에 병에 걸린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던 네 명의 도둑이 세이지와 각종 허브가 들어있는 식초를 먹고 바르며 도둑질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효과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이러한 속담이 만들어질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 식물정보[오텀세이지]

다년생 관목으로 건조하거나 중간정도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속명 *Salvia*는 ‘구원하다, 치유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salveo*에서 유래되었다.

다양한 의학 및 치료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꽃은 달콤한 과일향과 꿀맛이 나며 크기와 색깔이 매우 다양하다.

야생에서는 빨간색이 가장 흔하며 8월부터 10월까지 붉은

꽃을 피우므로 ‘가을세이지’ 라고도 한다.

마주나는 녹색의 잎은 비교적 빠르게 자라며 잎의 표면은 윤기가 난다.



오텀세이지 *Salvia greggii* A.Gray

그럼, 다음 식물을 만나러 다시 이동 하겠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거나 옆의 경사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볼 식물은 약간의 준비운동을 해야 합니다. 식물향을 맡을 때 향기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단한 손동작입니다.

먼저 왼손은 어깨높이에서 손바닥을 정면 바깥을 향해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를 해주시고 오른손은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준비운동 잘 하셨나요. 이제 지중해의 수로가 있는 곳으로 이동 하겠습니다.

○ 기억력에 좋은 로즈마리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식물이 로즈마리입니다.

짙은 향기를 지닌 로즈마리는 냄새를 없애주고 항균작용이 있어 요리의 향신료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약효가 강한 허브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로즈마리의 정유 성분은 기억력 향상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식물정보 [로즈마리]

다년생 상록 관목으로 건조하거나 중간정도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종소명 *rosmarinus*는 ros(바다)와 marinus(이슬)의 합성어로 해변가에서 독특한 향을 내어 ‘바다의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의학 및 치료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꽃은 봄부터 여름까지 연한 파란색으로 피며 전 년도에 자란 가지에 따라 겨드랑이에 작은 두 입술의 꽃이 핀다. 바늘 모양의 회녹색잎은 줄기에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향기로운 짙은향이 난다.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L.

○ 보랏빛의 대표식물 라벤더

라벤더도 로즈마리 못지않은 짙은 향기를 가진 친숙한 식물입니다. 라벤더를 덮고 있는 작은 털들 사이에 있는 기름샘에서 강한 향기가 나옵니다. 특히 라벤더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함을 주는 효과가 있어서 입욕제로도 비누와 화장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 식물정보 [프렌치 라벤더]

다년생 상록 관목으로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꽃대 위에 기다란 꽃잎 한쌍이 돌아나서 ‘토끼귀 라벤더’라고도 한다. 속명의 *Lavandula*는 라틴어 lavo ‘씻다’의 뜻으로 몸을 씻는데 사용해서 유래되었다. 작은 보라색꽃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핀다. 각 꽃은 길이 4~8mm의 포로 덮여 있으며 아래쪽포는 단면이 촘촘한 직사각형 모양이다. 향기로운 선형잎은 길이 2~6cm의 가늘고 회색 또는 녹색을 띠고 있다.



프렌치 라벤더 *Lavandula stoechas* L.

로즈마리와 라벤더 오딧세이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1~2분 정도 식물의 향을 맡아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씩 향을 맡아보고 오늘 해설의 마지막 식물을 만나보겠습니다.

○ 그림 속 식물이야기, 지중해쿠푸레수스(지중해사이프러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림은 2022년 11월 한 경매에서 약1600
 억 원에 낙찰된 그림입니다. 누구의 그림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 아실까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곧게 뻗는 지중해쿠푸레수스의 매력을 느꼈던
 고흐, 그림 속에서 이 나무는 어떤 것일까요? 아래 두 그림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두 그림에 나오는 나무인 지중해쿠푸레수스가 향이 나는 나무라
 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살짝 문질러서 향을 맡아보실까요?

지중해쿠푸레수스나무는 잎과 줄기 열매에서, 오일을 추출하여
 비누와 방향용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
 가 있다고 하니 그림과 함께 감상하시면 더욱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 식물정보 [지중해쿠푸레수스]

좁은 원추형으로 길쭉하고 크게 자라는 상록 침엽수이며 종소명
*sempervirens*는 항상 '항상 녹색'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는 나무를 '지중해 사이프러스'라고도 한다.
 꽃은 이른 봄인 2월말에서 3월 초에 황록색의 수꽃과 녹색의 암꽃이
 핀다. 비늘모양의 잎은 가지에 직립하여 뾰족하게 자라며 짙은 회색빛
 녹색잎에서는 으깨면 향기가 난다. 나무껍질은 얇고 매끄러우며
 오랫동안 회색을 띠다가 나중에는 회갈색이 되고 세로로 주름이
 진다. 종자는 난형 또는 직사각형이며 처음에는 녹색이고 수분 후 약
 20~24개월 후에 갈색으로 익는다.



지중해쿠푸레수스 *Cupressus sempervirens* L.

	<p>식물은 식용으로 약용으로 향신료로도 생활에 활용이 되고, 예술가에게도 영향을 끼쳐 위대한 작품으로도 탄생이 되고,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의 온실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p> <p>지금까지 지중해 온실 여행을 하며 향기식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5가지 식물 중에서 어떤 식물의 향기가 좋으셨나요. 5가지 식물은 오렘세이지, 유칼립투스, 라벤더, 로즈마리, 지중해 쿠푸레수스(지중해사이프러스)입니다.</p> <p>식물들은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한 향을 만들어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게 진화했습니다. 다양한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허브 식물은 여러 가지 전략을 써온 것입니다.</p>		
<p>마무리</p>	<p>○ 식물의향기, 나의 향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일상생활과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오시지 않았나요?</p> <p>허브식물들이 각자의 향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나만의 향기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향기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나의 향기를 남과 비교하여 나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나만의 귀한 향으로 나를 특별하고 귀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p> <p>오늘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중해 향기를 찾아서 해설을 맡은 수목원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교육자료

- 인쇄물로 사용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
Orchard with Cypresses (1888)



별이 빛나는 밤
The Starry Night (1889)

유칼립투스 그란디스

☝ (*Eucalyptus grandis* W.Hill)



오텀세이지

☝ (*Salvia greggii* A.Gray)



로즈마리

☝ (*Rosmarinus officinalis* L.)



프렌치 라벤다

☝ (*Lavandula stoechas* L.)



지중해쿠푸레수스

☝ (*Cupressus sempervirens* L.)

